

통일부 정례브리핑

2022.5.13.(금) 10:30, 차덕철 대변인 직무대리(통일부)

안녕하세요?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어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즉시 국가안보실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도발행위임을 지적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 바 있습니다.

통일부는 유관부처 등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통일부 주요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통일부 장관의 임용이 이루어지게 되면 취임식 등 관련 일정에 대해서는 추후 세부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사전에 여러분들께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모두에 준비한 말씀을 다 드렸고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북한이 이례적으로 확진자 발생 소식을 공개했는데 그동안 공개를 안 하다가 이번에 공개한 배경이나 이유가 궁금하고요.

북한의 핵실험이 또 임박한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는데 새 정부의 대응전략이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어제, 북한은 어제 북한 내 오미크론 감염자 발생과 관련해서 당 중앙위원회 제8차 정치국회의를 개최하고, 국가방역사업을 최대 비상방역체제로 철저히 이행해 나가는 문제와 관련된 결정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같은 날 비상방역사령부를 방문하고 비상방역사령을 지도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북한의 코로나 발생과 관련해서 이번에 북한이 확진자 등을 발표한 것,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이번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 전에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지는 현재 북한이 발표한 내용 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내용 갖고 있지 않고요. 다만, 이와 관련해서 어제 저희가 문자로써 통일부 입장을 공지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핵실험 준비동향과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입장을 말씀드렸는데요. 한미 정보당국은 긴밀한 공조하에 풍계리 내 핵실험 준비동향을 포함해서 북한의 주요 시설에 대한 동향을 면밀히 추적·감시하고 있습니다. 긴밀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모든 가능성에

대해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어제 통일부 입장도 그렇고 권영세 후보자께서도 코로나 관련 대북지원 의사를 명확히 밝히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북한에 공동 연락사무소 통해서 입장을 전달하시거나 또 상황 공유 받으신 것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어제 북한의 정치국회의를 통해 확진자 발생 사실을 공개한 이후 통일부는 문자 등을 통해서 정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는 북한의 관련 동향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나 행동은 아직 저희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 단계에서는 그 이후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만한 내용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 앞선 질문에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북한이 만약에 백신이나 아니면 방역·의료용품을 지원해 달라, 하고 요청할 경우에 현재 통일부에서 가동 가능한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전에 백신 검토는 계속해서 통일부에서 추진해왔, 검토는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만약에 이러한 예산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북한에 백신을 제공할 경우 몇 회분 정도의 대강 규모가 되는지 혹시 파악된 것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어제 정부는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과 남북 간 방역·보건의료 협력은 인도적 차원에서 언제라도 추진될 수 있다는 입장이며, 앞으로 남북 간 또는 국제사회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통일부는 이와 관련해서 올해 남북협력기금으로 보건의료 협력 관련 예산이 954억 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북한의 관련 동향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있지 않고요. 조금 전에 질문해 주신 구체적인 회분이나 규모 등에 관련한 수치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것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고려 요소나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산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어제 권영세 장관 후보자께서 제재와 상관없이 인도적 지원 할 수 있으니 최대한 지원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이 '최대한 지원 준비'의 범위가 대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건지 통일부에서 가능한 범위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상황 외에 그 전에도 북한에 의료품 같은 것은 전달한 적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상적인 의료품의 지원절차가 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 '장관 후보자께서 어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통일부도 구체적으로 준비한 부분이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사실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북한의 관련 동향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북 보건 협력, 의료 협력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먼저 여러 가지 경로가 있겠지만 국제사회나 남북 간에 지원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 관련된 해당 인원들이 만나서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 통일부가 갖고 있는 기금, 협력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안이나 그런 것을 결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결정된 예산이 집행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이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다시 더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어저께 북한이 오미크론 확진과 관련해서 최대 비상방역체계를 선포했는데 일부 그 내용들이 어제, 오늘 공개가 됐잖아요. 통일부 차원에서 혹시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최대 비상방역체계를 어떻게, 그 내용이나 성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여쭙보겠습니다.

<답변> 어제 북한의 보도에서는 5월 8일 수도의 어느 한 단체의 유열자들에게서 채집한 검체에 대한 분석 결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와 일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추가적으로 지난 4월 말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이 전국적 범위에서 폭발적으로 확대돼서 35만여 명의 유열자가 나왔고, 또 5월 12일 하루 동안만 1만 8,000여 명(※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1,800여 명' → '1만 8,000여 명'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의 유열자가 새로 발생했고, 현재까지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1명을 포함하여 6명이 사망하였다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북한의 코로나 발생상황과 관련해서 북한이 스스로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보도로 밝힌 것 외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추가

적으로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정보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추가로 좀 여쭙보겠는데요. 지금 어저께 비상방역체계를 얘기 하면서도 '경제사업, 그러니까 건설이나 농업 같은 경제사업은 기일 내로 완수해라.' 이런 내용의 김정은 위원장의 언급이 있었는데, 지금 방역 통제의 내용을 보면 전국 도시, 군을 통제하고 단위별로 격폐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병행... 그러니까 양립이 되는, 병행 추진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는지 여쭙보겠습니다.

<답변> 말씀하신 대로 고강도의 방역체계를 구축·집행하는 것과 함께 지난 8차 당 대회 등 북한이 사전에 제시했던 경제과업들도 동시에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하는 지시가 북한... 그러니까 입장을 북한 보도를 통해 발표한 것을 보았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그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관련된 동향과 관련된 결과물이 있으면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종합적인 분석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